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저 여인은 나처럼 지금 목이 마르구나..’

‘저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무시를 하니 저 여인은 내가 반갑지 않겠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하느님도 모르고 산에다 예배를 올리는데... 저 여인은 어디다 기도하는지도 몰라 하느님이 궁금하겠구나...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여자는 부당한 대우를 자주 받을 텐데... 저 여인도 삶이 힘들겠구나... 특히 저 여인은 남편도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은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아서 근심거리도 많겠구나... 그리고 저 여인은 나처럼 지금 목이 마르구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람을 만나듯 예수님은 그녀와 깊이있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무 신기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이 정도는 미리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것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나열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저 여인은 나처럼 지금 목이 마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

목마른 예수님이, 물을 찾은 여인을 보고 ‘갈증’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갖으며 ‘그녀의 깊은 내면’까지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내면’까지 보셨고,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내가 물을 찾지 않아도 목마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목이 마를 때 똑같이 목마른 사람을 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큼 내공이 된다면 내가 놓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목마른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남을 공감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요즘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내 고통인 것 마냥 느껴보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내 욕심을 메우기 보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을 용기있게 해내고,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나 일에 사랑을 실천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처럼 무엇무엇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점점 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사순시기의 중반을 넘고 있는 우리에게 사순절을 보내며 지키고 있는 나의 약속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현동 본당 보좌 김지성 안토니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생명의 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막의 한가운데 버려진 이스라엘백성에게 생명의 물을 내려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리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의 놀라운 업적을 전할 것을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491번 ‘십자가 아래에’

### 본기도

†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탈출기 17장 3절-7절

**안 내** :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내 놓으시오.” 라며 모세에게 시비를 겁니다.

**묵 상** : 우리 곁에 하느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라는 의심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혹시 마음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 답 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제2독서 : 로마서 5장 1절-2절, 5절-8절

**안 내** : 바로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기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성령을 통해 우리마음에 부어진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회개와 보속, 자선과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요한 4장 5절-42절

**강 론** : ‘저 여인은 나처럼 지금 목이 마르구나...’(1-2쪽)

**예물준비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침묵>

주님이 주신 물이  
내 안에서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의 샘이 되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을 누리기를 청해 봅니다.  
사마리아여인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도 주님께 물을 청합시다.  
생명과 행복의 물을 청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0번 ‘성요셉 찬양하세’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0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 알림

### ■ 우곡성지 미사 안내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일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일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 673-4152 FAX 054) 673-7094

### ■ 3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 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3월 19일(주일) 13:00 - 16:00
- 장소 : 영해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 교구성령기도회

- 일시 : 3월 27일(월) 20:30
- 장소 : 예천성당
- 강사 : 김찬도 분도(수원교구)

### ■ 사제연수

- 일시 : 3월 27일(월) - 28일(화)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 ■ 2017년 안동 48차 선택주말

- 일시 : 3월 31일(금)19:00-4월 2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054)652-0591~3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8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옥산본당 새 단장 성전 감사미사

- 일시 : 3월 19일(주일) 15:00
- 주례 : 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 2017 수취폐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3월 19일(주일) 19:30 용상동성당
- 4월 2일(주일) 19:30 영해성당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 ■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 의료선교봉사단 제18차 무료진료

- 일시 : 3월 26일(주일) 09:00 - 17:00
- 장소 : 사별퇴강성당
- 진료과목 : 내과, 정형외과, 안과, 영상  
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과, 피부  
비뇨기과, 한방과, 치과, 약국(당일 처방  
전 조제 및 복약지도 상담)  
주사실(영양제수액) 운영

### ■ 아씨시수녀들과 함께 수도생활체험 피정

- 일시 : 3월 25일(토) - 26일(주일)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2만원)
- 문의 : 010-5313-0241 전베로니카 수녀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 4장

#### 혼인의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114. ‘판타 피스투에이’(Panta pisteúei). 곧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엄밀한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신뢰’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고 짐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 신뢰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빛, 또는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여린 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15. 이러한 신뢰는 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자기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의 모든 발걸음을 세세히 뒤쫓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신뢰하고 자유를 허용하며, 모든 것에 대한 통제와 소유와 지배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율성을 키우고 세상과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게 해 주며, 인간관계를 풍요롭고 넓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배우자들은 서로 마주 보며 가정 밖에서 얻고 알게 된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를 통하여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충실하고 솔직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배우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숨김없이 모

---

든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언제나 자신을 의심하고 책잡거나 무조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간직하고 자신의 잘못과 나약함을 숨기며 본래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인 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견고한 사랑의 신뢰가 있는 가정은 무슨 일이 생기든 신뢰하고, 가족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절로 속임과 위선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116. ‘판타 엘피제이’(*Panta elpizei*). 사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믿는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는 상대방이 변하여 성숙해지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몰랐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의 희망을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비록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하느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악에서 어느 모로 선을 이끌어 내신다고 여기는 것 입니다.

117. 여기에서 희망은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희망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나약함에도 하늘 나라의 충만함을 향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전히 변화 되면 그곳에서는 그 사람의 나약하고 어둡고 병적인 측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참된 본질이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희망의 빛으로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록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성을 고대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에 계속 -



## 어느 멋진 날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인터넷신문을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했다. ‘다리가 떨리면 떠날 수 없다. 그러나 가슴이 떨리면 떠나라.’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다리에 힘이 풀려 보행이 자유롭지 않다 해도 가슴에는 떠나고 싶은 열정이 남아있다면 그럴 때는 어떡하지?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나에게는 정기적으로 매달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다. 교직생활 중 인연을 맺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교사 모임인데 은퇴 후에도 이어져 무려 28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매달 한 번 고만고만한 식당에 모여 이른 저녁을 먹고 한 시간쯤 수다를 떨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모임이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총무가 된 나는 앞으로는 식당에 모여 밥만 먹고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기롭게 선언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들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훨씬 짧아진 연륜들이고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어 좀 더 의미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세계 일주나 이름난 산을 종주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영혼과 육신을 위한 작은 힐링이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회원들에게 다음 달 모임은 식당이 아니고 목적지 불문하고 기차역으로 모이라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준비물은 각자 먹을 간식을 한 가지만 준비하되 사탕 한 개라도 10명의 회원들이 먹을 수 있는 수량을 갖고 오도록 부탁하였다. 그 대신 절대로 서로 무슨 간식을 준비할 것인지 의논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당일 가장 인기있는 간식을 준비해온 회원에게는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 고맙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약속된 날짜에 모두 나타나주었다. 회원들 모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자리를 잡고 기차가 출발하자 각자의 배낭을 열었고 드디어 다양하고 화려한 간식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정말 기대이상이었다. 그냥 재미로 제안해본 퍼포먼스였는데 오늘의 간식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생전 처음으로 떡을 장만해온 회원도 있었다. 떡이란 다른 먹거리와 달라 집에서 장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익히 알기에 그 회원의 정성에 진심어린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랩에 정성스럽게 싸여져 아직도 온기와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떡을 받아들며 우리 모두 감동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M항구의 방파제를 따라 걸다가 등대까지 올라갔다. 초여름이라 바람은 신선했고 햇빛은 풍요로웠으며 에메랄드빛 파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28년 동안 떠들던 수다는 다 잊어버리고 모두가 말없이 눈앞에 펼쳐진 자연 속에 빠져들었다.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고 잠시 현실을 잊고 마음이 자연과 일치되는 행복한 순간이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시간이 영원히 정지되어도 좋을 것 같은 표정들이었다. 이렇게 회원전원이 식당이 아닌 곳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 28년만의 일이라니 도대체 그동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 왔을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다리에 힘도 풀리지 않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깐. 식사를 하러들어가던 식당의 주방이모가 어찌나 친절하던지 우리는 남아있던 약간의 떡과 과일을 그녀에게 몽땅 안겼다. 이래저래 오늘은 멋진 날이다.